

‘더 뉴 스파크’ 하루 200대 사전계약

한국GM, 부활의 ‘스파크’

지난해 스파크 평균 판매량 돌파
사전계약 흥행... 내수 부활 시동
중형 SUV ‘이쿼녹스’도 출격
“소비자 신뢰회복에 방점”



쉐보레 더 뉴 스파크.

한국GM이 ‘더 뉴 스파크’의 출시를 시작으로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4월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사전 계약을 시작한 한국GM의 더 뉴 스파크는 일 평균 200대 계약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스파크의 일평균 판매량(129대)을 넘어서는 수치다.

올해 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인해 ‘철수설’까지 증폭되면서 내수 판매가 절반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스파크의 흥행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의 첫 주자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린 더 뉴 스파크는 2015년 출시된 ‘더 넥스트 스파크’의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 모델이다. 한국GM은 신형 스파크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가격 인상 폭은 최소화해 국민경차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목표다.

신형스파크는 디자인과 안전사양을 대폭 강화했다. 외장 디자인에는 쉐보레의 시그니처인 듀얼 포트 라디에이터 그릴을 넣고 크롬 장식을 적용했다. 공기역학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단부 그릴을 좌우로 확장해 강인한 전면부를 완성시켰다.

시속 60km 이하 저속 주행 시 전방 충돌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인 ‘저속자동긴급제동시스템’이 새롭게 적용됐고 동급 차종 중에는 유일하게 ‘차선이탈경고시스템’과 ‘사각지대경고시스템’을 탑재했다. 상품성은 개선됐지만 이전 모델 대비 시작 가격은 20만 원 낮아졌고, 트림별 가격도 지난 모델들과 거의 비슷하다. 판매가는 972만~1290만원이다. C-테크 변속기 모델은 트림별로 180만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한국GM은 스파크에 이어 내수시장을 공략할 또 하나의 야심작으로 중형 SUV 이쿼녹스를 선보인다. 이쿼녹스는 지난해부터 출시가 점쳐졌던 모델로 이미 국내 시장에 기다리는 소비자가 많다.

이쿼녹스는 미국 시장에서 매년 20만대 이상 팔리는 GM의 스테디 셀러다. SUV 라인업이 부진했던 한국지엠은 이쿼녹스를 통해 성장세인 국내 SUV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이쿼녹스를 전량 수입해 판매한다.

미국 시장에서 2.0L 가솔린 터보, 1.5L 가솔린 터보, 1.6L 디젤 등 세 가지 모델이 판매되는 것과 달리 한국시장에는 디젤 모델만 수입한다.

한국GM 관계자는 “(스파크) 초반 소비자 반응은 좋은 편이지만 사전계약 수치만으로 흥행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량 판매보다는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 참여기업과 미얀마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미얀마 고효율 콕스토브 보급사업 착수를 환영하고 있다. 우 오 원 미얀마 환경부 장관, 쏘 미앗 마오 만달레이 주지사, 김정수 SK텔레콤 오픈콜라보 기획그룹장(왼쪽 다섯번째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SKT 친환경 경영, 미얀마로 영토 확장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위해
콕스토브 5만4000대 보급

SK텔레콤은 4일 미얀마 현지에서 NGO 단체인 기후변화센터, 미얀마 환경부와 협력식을 갖고, 미얀마 환경개선을 위한 콕스토브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콕스토브란 시멘트 소재로 만들어진 난로 형태의 조리도구다. 열효율을 증가시켜 탄소배출량과 나무떨감 사용량을 줄이고, 조리시간을 단축하는데 효과적이다.

미얀마는 독일 민간 환경단체인 저먼워치가 발표한 ‘2016년 기후위험지수’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 2위’로 선정될 만큼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오는 이상기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얀마 중북부에 위치한 건조 지역은 극심한 대기오염과 사막화 등으로 주민들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미얀마 건조지역에 5만4000대의 콕스토브를 보급한다. 현지 주민들은 콕

스토브 사용을 통해 조리 시 열효율 증가와 함께 기존에 사용하던 나무떨감 사용량을 줄이게 돼 연간 약 10만 6000톤 상당의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콕스토브 사용으로 하루 6시간 이상 걸리던 조리시간이 4시간 내외로 단축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가사노동 환경 개선은 물론 조리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진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유엔에서 개발한 온실가스 감축제도인 청정개발체제(CDM) 모델로 추진된다. 기후변화센터는 사업개발 역할을 맡고 SK텔레콤 및 한국전력, 남동발전, 삼표 등이 투자기업으로 참여한다. 투자비용은 CDM 모델에 따라 감축된 탄소배출량의 일정 부분을 상정, 탄소배출권 형태로 충당된다. CDM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한 온실가스 감축제도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술적·금융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량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클라우드 제트’로 ‘SaaS’ 서비스 확산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SK㈜ C&C

인프라·DB 자원 구성 3시간 소요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효율성 ↑

SK(주) C&C의 글로벌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제트’가 국내 솔루션 업체들의 서비스용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 확산의 길을 열고 있다.

SK(주) C&C는 4일, 국내 대표 전략경영·제품수명주기관리 솔루션 기업인 ㈜이즈파크가 자사의 성과관리 솔루션인 ‘스트래티지게이트’의 SaaS 상품을 클라우드 제트로 구현·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스트래티지게이트는 100여곳 이상의 공공과 민간기업 시스템에 구축된 국내

의 대표적인 성과관리솔루션비즈게이트 BSC+의 클라우드 버전이다.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확산 사업’ 대상으로 지정돼 전국 산업단지 소속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스트래티지게이트 솔루션 사용비용의 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이즈파크는 이번 클라우드 제트 도입을 통해 기존 스트래티지게이트 솔루션 SaaS 서비스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글로벌 지역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구성하는 데 2주가량 소요되는데 클라우드 제트상에서는 3시간 만에 끝나 서비스 신규 구축·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이즈파크는 기존에 사용하던 외산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제트가 제공하는 국산 DB 서비스인 ‘클라우드 제트 디바스’로 교체한다.

클라우드 제트 디바스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티맥스의 ‘티베로’ 등 국산 DB솔루션과 어떤 솔루션과도 자유롭게 융합되는 ‘마리아DB’ 등 오픈 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SaaS형태로 제공하는데, 기존 솔루션 이용 대비 약 60%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즈파크는 클라우드 제트 도입과 함께 글로벌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KT의 모델들이 야외에서도 자유롭게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LTE빅프로젝터를 홍보하고 있다. /KT

KT “야외서도 끊임없이 영화보세요”

LTE기반 빅프로젝터 출시

KT는 롱텀에볼루션(LTE)기반으로 미디어 스트리밍이 가능한 ‘LTE빅프로젝터’를 오는 11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10일까지 예약가입 프로모션을 연다.

‘LTE 빅 프로젝트’는 LTE 에그 기능을 결합한 미니 빅프로젝터다. 인터넷 연결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고 작은 크기로 캠핑, 소풍 등 야외 활동에 휴대할 수 있다. 또 ‘올레 TV 모바일’ 등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을 큰 화면으로 즐길 수도 있다.

KT는 LTE빅프로젝터 출시를 기념해 신규 가입 고객에게 올레TV모바일 6개월, 프리미엄비팩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올레TV모바일은 tvN, JTBC 등 100여개의 실시간 채널과 18만편의 주문형비디오(VOD)를 제공하며, ‘프리미무

비팩’을 통해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와 국내 유명 영화사의 영화, 해외시리즈, 애니메이션 1만5000편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다.

10일까지 예약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미니빔 전용 삼각대와 40인치 스크린 세트 증정한다.

더 높은 음질로 콘텐츠를 감상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을 연결할 수도 있다. 이 밖에 본체에 있는 핫스팟 버튼으로 빔을 켜지 않고도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기기에도 활용 가능하다.

LTE빅프로젝터의 출고가는 33만원(부가세 포함)으로 KT의 ‘데이터투게더 라지’, ‘스마트디바이스(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다. KT 모바일 고객 중 지난 달 30일 출시된 데이터ON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는 월정액 1만1000원의 데이터투게더 라지 요금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한강 솔빛섬에 동화·AR 체험존 구축

LGU+ 어린이 전시체험관 PIM

LG유플러스는 한강 반포지구 솔빛섬에 위치한 어린이 전시체험관 PIM(플레이 인 뮤지엄)에 ‘U+tv 아이들나라’ 및 ‘U+우리집AI’ 서비스 체험존을 구축,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체험존은 비주얼 아티스트 노보(Novo)가 디자인했다.

체험존에 방문한 고객은 베스트셀러와 우수동화 330편을 구연동화 전문 성우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는 ‘책 읽어주는 TV’를 이용해볼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자연관찰학습 콘텐츠인

‘생생자연학습’을 통해 곤충, 동물, 곤충 등 54가지 캐릭터를 3D 그래픽으로 보며 울음소리 듣기, 가상 먹이주기 체험이 가능하다.

‘U+우리집AI’를 통해서 음악듣기, 날씨 확인, 네이버 검색 기능과 YBM영화동화, 번역 등 외국어 교육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책 읽어주는 TV, 생생자연학습, U+우리집AI 서비스 3종을 모두 체험한 고객에게는 PIM 30분 추가 이용권을 증정한다. 전시공간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주는



어린이 모델이 LG유플러스의 ‘U+tv 아이들나라’ 및 ‘U+우리집AI’ 서비스 체험존을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는 이벤트도 연다.

LG유플러스는 아이들나라 서비스를 체험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PIM 이용권 1매 및 보호자 입장권 1매를 추첨을 통해 증정하는 이벤트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김나인 기자